

사이비 종교인화와 사이비 종교의 폭력성  
: 권오경(R.O. Kwon), 『인센디어리스(*The Incendiaries*)』(2018)

이행선\*

〈차 례〉

1. 들어가며
2. 삶의 회의와 신앙의 기쁨, 신도의 사이비 종교인화
3. 교주의 지배력과 종교의 폭력성
4. 나가며 : 건강한 신앙과 영성의 훈련

【국문초록】

2018년 한국계 미국작가 권오경(R.O. Kwon)의 『인센디어리스(*The Incendiaries*)』가 출간되었다. 이 작품은 무교였던 피비(Phoebe)가 존 릴(John Leal)에 의해 기독교 기반의 사이비 종교에 빠진 후 낙태 반대 운동을 하다가 광신도가 되어 산부인과 병원을 폭탄 테

---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러하고 당국을 피해 도망치는 소설이다. 필자는 피비와 교주의 광신도로의 변모 과정과 의미를 고찰했다. 국내외에서 사이비 종교와 교주, 신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 작품은 제한적이지만 그 이해에 일조한다. 이 작품은 ‘인간관계와 연애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유대감’과 ‘종교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유대감’의 대비 속에 피비가 후자에 전적으로 매몰되는 서사이다. 하나님의 쓸모 있는 인간이자 손이 되겠다는 정체성의 정립과 성령 체험의 열망은 존 릴과 같은 사이비 선지자에 의해 사이비 교주와 광신도라는 새로운 착취관계로 변질되고 만다. 이러한 피비의 변화 궤적이 독자에게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난한 삶을 마주하는 용기, 더 나아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과 영성을 키우는 종교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주제어 : 재미 한인, 사이비 종교, 영성 체험, 종교극단주의, 테러

## 1. 들어가는 말

2018년은 인민사원 집단자살 사건(Mass Suicide at Jonestown)이 일어난 지 40년 되는 해이다. 1978년 11월 18일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요릭 타운에서 인민사원의 914명이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인민사원은 미국의 사이비 교주 짐 존스(Jim Jones, 1931-1978)가 창시한 기독교계 사이비 종교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Peoples Temple of the Disciples of Christ)을 가리킨다. “교주 짐 존스는 1950년대에 고향인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인민사원을 처음 세웠다. 미국 내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백인 중심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인민사원에서는 1956년부터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흑인 신도의 지지를 받았다. 교주는 1960년대엔 캘리포니아로 거점을 옮기고 냉전으로 핵전쟁이 닥칠 것이란 종말론을 내세웠다. 이때부터 인민사원은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 등 도시 빈민을 도우며 교세를 확장했다. 그러다가 교주는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도를 폭행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등 악행도 일삼았다. 이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존스는 1977년에 신도들을 대거 이끌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미국을 떠나 가이아나 정글로 들어갔다.”<sup>1)</sup>

“짐 존스를 따라 1천명 가까운 사람이 존스타운에 모여 살았다. 생존자 로라 존스턴은 2018년 BBC 인터뷰에서 ‘멋진 사람들이었지요. 모든 인종과 배경, 모든 사회경제적 수준을 아우르는 환상적인 공동체였다’고 회고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197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리오 라이언이 기자들과 함께 인민사원 공동체를 찾아왔다. 미국에 남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방문 둘째 날, 열 명 남짓한 신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라이언을 찾아왔다. 라이언의 조사단과 열 명 남짓한 신자들이 미국에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인민사원 신도들이 비행장을 찾아와 총을 쏘아댔다. 라이언과 기자 등 다섯 명이 숨졌다. 그리고 짐 존스는 역사에 남을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렸다. 900명이 넘는 인민사원 사람들이 다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한 것이다. 1978년 11월 18일, 인민사원 신자 913명이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만도 300명이 넘었다. 어른들은 순순히 독약을 나눠 마셨다. 평소에도 이들은 독이라고 쓰여 있는 가짜 독약을 마시며 집단자살 훈련을 했다고 한다.”<sup>2)</sup> 이와 같은 인민사원 집단자살 사건은 미국 역사상

1) 「1000명이 청산가리 주스 마셨다…‘집단자살’ 조종한 그들 실체」, 『중앙일보』, 2023.4.29.

최대의 집단자살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사이비 종교단체 인민서원의 충격적인 사건은 이후 미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었다. 가령, 2013년 공포영화 〈새크라멘트(The Sacrament)〉(2013)는 인민사원 집단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다. 또한 2017년 4월 출시된 게임 〈아웃라스트 2〉도 해당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제작자가 밝혔다. 같은 해 제프 귄(Jeff Guinn)에 의해 『The Road to Jonestown: Jim Jones and Peoples Temple』이라는 전기물이 출간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호주 방송에서 취재를 통해 학살 40주기 추모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인민사원에서 탈출에 성공한 신도, 자살한 신도의 가족, 그리고 짐 존스의 아들이 증언을 해주었고 존스타운의 40년 후의 모습도 담겼다. 2019년에는 게임 〈The Church in the Darkness〉가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 2023년에는 미국에서 이 사건의 영화 제작이 결정되었다. 2017년에 출간된 전기물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주인공 짐 존스는 유명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기로 했다. 디카프리오의 2018년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시리즈 〈존스타운: 테러 인 정글(Jonestown: Terror in the Jungle)〉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한 바 있다.<sup>3)</sup>

이와 같이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도 소환되고 영화 제작까지 이루어지는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타 세계 각국의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재산 탈취, 성폭력, 테러와 종교 분쟁, 집단자살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면에 비추어 미국 문학계에 서는 인민사원 집단자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인 2018년에 한국

2) 「사이비종교 ‘인민사원’ 신도 900여명 집단자살을 이끌다」, 『한겨레』, 2022.11.17.

3)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900명 집단 자살 부른 사이비 교주 된다」, 『TV 리포트』, 2023.1.29.

계 미국작가 권오경(R. O. Kwon)이 사이비 종교를 다룬 자신의 첫 장편소설 『인센디어리스(The Incendiaries)』를 출간했다. 이 소설은 독자와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고 BBC와 NPR을 비롯한 40여 개의 매체와 단체에서 2018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작품으로 작가는 『뉴욕 타임스』에서 ‘주목받는 작가 4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미도서비평가협회 존 레너드상,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도서상 데뷔작 부문 등 각종 권위 있는 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권오경 1). 또한 2019년에는 한국계 미국작가 토스카 리(Tosca, Lee; 한국이름 - 이지연)가 사이비 종교단체를 다룬 장편소설 『라인 비트윈(The Line Between)』을 출간했다. 이 소설은 2019년 인터내셔널 북어워드 베스트 미스터리/스릴러 부문을 수상했다.

『인센디어리스』와 『라인 비트윈』 모두 ‘사이비 종교’<sup>4)</sup>를 다룬 범죄소설의 성격을 갖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규모가 다르다. 『인센디어리스』는 7명 정도로 소규모가 집에서 종교 모임을 하는데, 『라인 비트윈』은 사업을 하는 대규모의 교회와 집단 거주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인센디어리스』가 성년이 된 대학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테러를 저지르는 광신도가 되는 과정을 다루었다면 『라인 비트윈』은 너무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기숙생활을 시작해서 모태신앙처럼 사이비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주인공이 성장하면서 성추행과 교주와의 결혼

4) “사이비 종교란, 겉으로는 기성 종교와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달라 사회 일반의 상식과 윤리는 인정하기 어려운 종교를 의미한다. 사이비 종교는 전통교회나 종교에서 분파된 특수 공동체 및 영적 착취집단으로서 성경을 근본주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그 창시자들을 예언자나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나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운동이나 모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이비 교주 또는 사이비 종교인은 종교적 본질을 자신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표방하나 실제로는 종교적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노연상 39).

문제를 매개로 사이비를 꿰뚫어보고 탈출을 한다. 이와 같이 전자는 광신도가 되는 작품이고 후자는 광신도에서 벗어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반대이다. 『라인 비트윈』은 사이비 종교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등장인물의 정신사와 추종의 메커니즘이 파악될 수 없는데, 『인센디어리스』는 이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비 종교와 교주, 신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라인 비트윈』은 국내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이행선 410-439), 본고에서는 권오경의 사이비 종교를 다룬 소설 『인센디어리스』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방역 문제로 신천지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엄청난 신도 규모에 국민 다수가 놀랐다. 그 이후에는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종교단체 JMS 기독교복음선교회와 교주의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sup>5)</sup> 특히 이 선교회 총재의 성폭행을 폭로한 홍콩 여성은 해당 사건이 홍콩에서도 화제가 되어 홍콩에서 취업이 어려워진 현실을 밝혔다. 이처럼 일반인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권오경의 『인센디어리스』에서 주인공 피비(Phoebe)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일련의 과정과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 존 릴(John Leal)의 지배력 확대 과정을 고찰하여 사이비 종교화의 의미와 사이비 종교의 폭력성이 갖는 의미를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인센디어리스』가 미국에서 출간되었을 때 ‘첫 사랑’이 어떻게 종교적 근본주의만큼 취하게 하고 위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어둡고 흡수력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받은 바 있다.<sup>6)</sup> 이

5) 『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데일리안』, 2023.3.13.

는 여성 피비와 대학교 남자친구 윌 켄들(Will Kendall)의 연인 관계에 주목한 독법으로 결별 이후에도 피비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는 윌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해석이다. 충분히 타당한 독법이지만 필자는 ‘피비와 윌 켄들의 관계’가 아니라 ‘피비와 존 릴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랑이 아니라 종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신도와 교주 관계의 형성과 신도 피비의 광신도화, 교주의 지배력과 사이비 종교의 폭력성 문제가 주는 의미에 천착한 것이다. 그동안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와 종교근본주의의 폭력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왔고 여전히 성찰의 대상이다. 국내외에서<sup>7)</sup> 사이비 종교와 교주, 신도, 종교적 테러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권오경의 『인센디어리스』는 제한적이지만 사이비 종교 이해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의 2장은 피비의 광신도로의 변모가 갖는 추종의 메커니즘과 의미를, 3장은 사이비 교주의 변모와 지배의 메커니즘, 그 의미를 고찰한다.

6) “When First Love Is as Lethal as Religious Extremism”, The New York Times, 2018.7.24.

7)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사건 용의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돈을 기부하다가 파산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23년 4-5월 케냐의 사이비 종교 단체 ‘기쁜소식 국제교회’는 굶어 죽어야 예수를 만난다며 금식을 이어가다 수백 명의 신도가 집단 아사하는 샤카홀라 숲 학살 사건이 경찰에 발각되었다. 지금까지 신고 된 실종자는 609명에 달한다. 『“굶어죽어야 예수 만나”...케냐 ‘사이비 종교’ 실종자만 609명』, 『서울신문』, 2023.5.13.

## 2. 삶의 회의와 신앙의 기쁨, 신도의 사이비 종교인화

『인센디어리스』는 여성 피비, 피비의 남자친구(연인) 월 켄들, 피비를 제자로 끌어들이는 교주 존 릴(남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주된 공간적 배경은 뉴욕에서 멀지 않은 미국 동부 녹스허스트(소설 속 가상의 배경 도시)의 에드워즈대학(소설 속 가상의 대학)과 기숙사이다. 시간적 배경은 피비가 녹스허스트의 에드워즈대학 1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3년여의 시간이다. 월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무교(無敎)의 삶을 선택한 후 에드워즈대학 2학년에 편입하기 때문에 월의 시간으로 보면 2학년부터 4학년 졸업 직후 6월 시점까지이다. 사이비 종교 교주 존 릴은 지역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 삼아 6명 정도의 최소 인원의 신자만 데리고 제자(弟子)라는 종교모임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센디어리스』는 무교였던 피비가 존 릴에 의해 기독교 기반 사이비 종교에 빠진 후 광신도가 되어 가고 낙태 반대 운동을 하다가 산부인과 병원 5곳을 폭탄 테러하면서 당국을 피해 도망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이다. 여기서 피비는 3살 무렵에 서울에서 미국으로 어머니와 함께 넘어온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어머니는 결혼 생활이 문제가 있었다. 월은 미국 서부 카메니타 지역의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한 미국인이었으며 신학대를 그만두고 일반 대학에 편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교가 된 인물이다. 교주 존 릴은 미국에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고, 피비의 대학친구로 나오는 줄리언 노는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자 동성애자이다. 월만 제외하고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이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런 점에서 피비의 사이비 종교화는 미국에서 부모의 갈등 하에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 1.5세의 종교 입문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산부인과 병원을 폭파한 테러리스트이자 광신도인 피비가 종교에 입문하고 사이비 종교인화를 넘어 광신도가 되는 과정과 의미를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이는 다르게 보면, 피비가 종교인으로 거듭나는 신앙적 성장이 왜곡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피비가 종교에 빠지고 신앙인으로서 변모하는 주요 원인과 의식 변화 과정이 분석되어야 한다. 필자는 피비가 종교에 빠지는 과정과 정도를 단계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종교 입문 이전 학창시절과 대학 입학 무렵의 피비의 내면의 상태이다. 첫째, 아버지의 영향을 살펴보면, 피비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자마자 부유한 집안의 아버지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젊은 며느리를 괴롭혔고 연애할 때만 해도 유순하던 아버지는 돌변하여 하루 종일 타박했다. 첫아이를 낳은 직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 LA로 건너왔다. 아버지는 모녀를 찾아와 간청을 하여 다시 함께 살게 되는데 아버지의 구타와 폭언이 심해지면서 폭행으로 졸도한 어머니는 피비가 5살 때 아버지 없이 살아도 되겠느냐고 의사를 물어본 후 아버지와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이와 같이 피비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만행과 부모 이혼을 경험한 한국계 이민자로서 5세 이후부터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폭력적인 아버지를 부정했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열<sup>8)</sup>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딸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고 딸의 성공을 기원하여 피비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만들고자 했다. 어머니는 사과와 복숭아 깎는 것도 가르치지 않을 만큼 피비가 피아노에 몰입하도록 지원했다. 그래서 피비는 쟁쟁한 경쟁자들과 경쟁하고 그 중압감을 이겨내며 오직 피

8) 재미 한인의 교육과 직업에 대해서는 (이정탁·박계영, 197-211 참조).

아노 연주에만 매진했다. 리비흐를 치면서부터 피비는 최고상을 휩쓸기 시작하는 단계가 된다. 그런데 레슨 선생님이 선물로 준 리비흐 1951년 공연 실황 레코드를 듣고 피비는 전축을 얻어버린다. 자신이 피아노를 잘 치지만 리비흐와 같은 재능이 없다고 자각한 것이다. “내가 숭배하는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이룩한 것들에 내 성취를 보탬 수 없다면 이 삶을 음악에 바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권오경 42)고 생각한 피비는 음대에 넣었던 지원서를 모두 철회하고 에드워즈에 합격했으니 거기로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평생의 꿈을 순식간에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녀에게 피아노는 어떤 의미였는가. “피아노는 나를 고양시켰어요. 마치 커다랗고 강력한 피아노의 혼령이 된 것처럼, 윤이 흐르는 피아노의 깊숙한 내부에 스며들어가 이리저리 돌진했어요. 나는 피아노를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도,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권오경 45) 이와 같이 피비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과 일생을 함께 한 피아노를 상실한 경험을 했다. 재미 한인 부모의 교육열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피비에게 미친 영향은 파악되지 않지만 피비는 자신의 음악적 기여도만 중시할 뿐 음악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가치와 자신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음악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사고방식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셋째, 어머니의 죽음이 피비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리비흐 음반 이후로 피비는 음악을 듣지 않았지만 그전에 첼로 공연을 예매해 둔 게 있었다. 피비는 어머니와 이 연주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돌아오는 길에 피비는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집을 1.5 킬로미터 남겨두고 다시 울음이 터졌다. 그렇게 시야가 흐려진 채 반대쪽 차선으로 차를 몰았고 트럭과 충돌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안전벨트를 풀고 피비를 감싸 안았고 피비는 전

혀 다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피비는 자신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를 흘리는 어머니를 일으켜 병원으로 빨리 옮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이와 같이 대학 입학 전, 피비는 부모 갈등과 이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상실감, 꿈이었던 피아니스트 포기가 주는 상실감, 어머니의 죽음의 죄책감과 상실감이 더해져 절망적 심리상태에 처했다. 이러한 내면의 붕괴 상태에서 피비는 교주 존 릴을 만나기 전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한 달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졸업식 이후 미국 서부에 살던 피비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대학 기숙사로 옮겨가게 되는데, 꿈을 상실했고 어머니 죽음의 죄책감까지 더해진 피비는 학업에 소홀하고 술과 마약, 클럽, 섹스에 빠져 삶의 지향 없는 방탕한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 피비는 “나는 이제 하찮은 사람이 되었”(권오경 78)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그녀는 우연히 클럽에서 월을 만나게 되고 연인이 되어 월을 의지하게 한다. 이처럼 『인센디어리스』에서 존 릴을 만나기 이전 단계의 피비는 아버지의 폭행, 아버지의 부재, 피아니스트의 포기와 상실감, 꿈의 부재, 어머니 사망의 원인제공자로서의 죄책감, 어머니 부재가 주는 상실감에 휩싸인 상태로 설정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여기에 한국계 이민자 1.5세로서의 외로움과 소외감, 삶의 허무함<sup>9)</sup>이 더해진

9) 주지하듯 니체는 소극적 허무주의와 능동적 허무주의를 구분했다. 소극적 허무주의는 나에게 주어진 허무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일시적인 향락과 쾌락에 빠져 허무로부터 도망가고 타인이 부과한 기준에 충실한 채 살아가면서 오히려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고, 능동적 허무주의는 자신이 마주한 허무를 직시하고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이상엽 331-356). 이에 비추어 피비는 소극적 허무주의의 태도로서 삶의 방향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지고 만다.

다. 이는 피아노를 통해 영혼이 고양되는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스스로 자기혐오에 휩싸여 자기처벌과 자기비하를 하며 타락한 삶과 영혼으로 몰락해가는 극단적 변화과정이다. 이러한 절망적 심리상태가 종교 입문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피비가 존 릴과 접촉하면서 제자 모임에 합류하는 시기이다. 피비는 남자친구 월과 사귀고 동거하면서 무분별한 만남과 섹스는 하지 않았지만 상실감과 고통에서 비롯된 방황은 해소되지 않았다. 피비는 “단 한순간도 슬픔을 잊지 않았다”(권오경 128)고 토로했다. 죄책감과 상실감이 뒤섞인 삶에서 월은 피비에게 그나마 피비의 정신적 방황을 일부라도 막아주는 안식처였다. 그런데 가난한 월은 너무 바빴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 월은 병원비와 학비, 생활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고급 레스토랑 미켈란젤로스의 직원이 되어 밤에 일을 했고 남은 시간은 학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높은 학점을 유지했다. 또한 그는 인턴을 신청해서 첫 방학에는 베이징의 투자회사에서 유급인턴을 했고 그 다음에는 뉴욕 맨해튼의 헤지펀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그래서 여름방학 베이징 인턴 기간 동안 피비와 월이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피비가 존 릴과 가까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이다. 그 이전 월, 피비가 존 릴의 집에 초대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피비가 연락을 거절했었다. 그러다가 방학 기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고 학교에 사람이 없어서 피비가 외로움을 느끼다가 맨해튼의 줄리언을 찾아가는데 그때 줄리언의 게이 친구에게 줄리언 몰래 성추행을 당한다. 이때 피비는 “이게 내가 하는 짓이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권오경 175)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실감과 죄책감에 외로움, 고립감이 더해진 상황에서 외부의 성폭력이 자책감과 자기혐오를 더욱 가중하는 절망적 상태에 이르면서 피비는 존 릴의 제자 모임

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피비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민자잖아. 이민자들은 심리상담을 믿지 않아. 내가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주위 한국인들이 의지박약이라고 볼 거야. 다른 인종 집단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게을러서 그런다든지, 불효하는 거라든지. 나는 말했다. 난 심리상담이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봐. 그녀가 대꾸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 나한테 그렇다는 거야. 심리상담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좋아,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치지. 그걸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 줄리언은 영어에서 가장 맥 빠지게 하는 표현이 “레드로 드릴까요, 화이트로 드릴까요?”라고 하지만, 개 생각은 틀렸어. 그것보다 더 심한 표현은 “어젯밤 무슨 꿈을 꿔냐 하면……”이니까……(권오경 160)

피비는 존 릴과 제자 모임에서 어떠한 필요를 충족하게 되는가. 첫째, 제자 모임은 피비에게 피아노를 다시 되돌려준다. 존 릴이 교회 찬송가의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는데 찬송가는 리비호의 연주 곡처럼 전문적이지 않은데다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피비는 연주를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비는 제자 모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확보했으며 피아노에 대한 상실감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집단고백 시간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일부분 덜어내는 효과가 있었다. 제자 모임에서는 신도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게 하는데 피비는 어머니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털어냈다. 자기고백은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한 마음 속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자기반성을 통해 죄의식을 일부분 해소시켰다는 점에서 일종의 심리상담의 효과가 있었다. 월이 베이징 인턴을 가기 전에 새벽에 발작을 하며 깨는 피비에게 정신과 심리상담을 권했지만 피비는 재미 한인사회에서 심리상담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

인적으로도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처지의 피비에게 7명 정도의 작은 종교모임의 집단고백 시간은 재미한인사회와 정신과 의사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경험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제자 모임은 피비에게 친밀감과 소속감, 심리적 지지자를 준다.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한 일이 한인 교회를 만든 것이다. 아버지는 한국계 이민자 사이에서 한인교회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력적인 아버지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피비는 아버지로 인해 한인교회도 꺼린다. 하지만 제자 모임은 가정집에서 소규모 인원만 모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위하며 보살핀다는 감각이 피비의 외로움과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

나는 학교에 있는, 올림픽 경기에서 쓰는 크기의 수영장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줄무늬 모양으로 배열된 타일들 위를 미끄러져 지나가는 흐릿한 유령 같은 나 자신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 습관이 변하더라고요. 술을 덜 마시게 됐어요. 진이 마시고 싶어진다면 대신 토닉을 마셨죠. 미처 몰랐는데 나는 규율을 갈망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피아노를 그만두면서 덩달아 잃어버린 생활이었어요. 정해진 일정, 엄격한 요구. 매일 밤 여섯 시간 이상을 연습하면서 규칙들로 나 자신을 한 자리에 고정할 수 있었어요. 규칙들이 나를 떠받쳐줬던 거죠.(권오경 199)

말해줄게.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렇게 운을 떼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제자에서 집단 참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 이야기하고 다짐을 세운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짐에 대한 육체적 기록을 남기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권오경 235)

넷째, 종교 모임은 피비에게 규칙적 삶을 되돌려줬다. 피비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피아노 연주를 위해 혹독한 시간관리와 규율 속에서 살았었다. 그러한 삶이 피아니스트 포기과 어머니의 죽음 이후 무너졌는데 종교 모임의 엄격한 규칙이 피비에게 과거 내재화되었던 엄격한 규율에 대한 갈망을 복원하고 충족시켜주었다. 가령, 제자 모임은 엄격한 출석을 규칙으로 했다. 또한 존 릴은 제자에게 운동을 강요했다. 피비는 수영을 하면서 술을 줄이고 월과 줄리언만 제외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때 알았던 사람들과 단절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비가 제자 모임에 합류하는 단계를 넘어 광신도화 하는 시기이다. 첫째, 영적 훈련의 방법이 바뀐다. 제자 모임의 신고식 이후 정식 멤버로 받아들여지면 제자 모임의 수행 규칙이 훨씬 강화되었고 집단고백이 집단참회로 한 단계 발전한다. 이 단계에서는 참회가 자기 과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고백의 수준이 된다. 제자 모임 때마다 신도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한 과오를 자백하고 상호비판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이 형벌과 결합되면서 건강한 종교의 범주를 넘어 사이비 종교로서의 실체가 가시화 된다. 신도는 채찍으로 등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게 된다. 피비의 등에는 부은 자국과 멍, 군데 군데 찢어진 상처가 생겼지만 그녀는 월에게 “그(존 릴, 인용자)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 가뿐해진 기분이야. 월, 난 환희에 차 있어. 살아 있어서 기뻐. 너도 함께 할 수만 있다면……”(권오경 235)이라고 말했다. 각종 형벌에 의한 정신착란을 영혼의 충만함과 영적 훈련으로 느끼는 이즈음에 이르러 피비가 정신적으로 사이비 종교 모임의 완전한 일원이 된 것이다.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적·육체적 착취를 영적 수련과 구별하지 못하는 이 단계는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 실천과 종교 모임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없는 의식 수준을 드러낸다.

둘째, 남자친구의 성폭력의 충격이 발생한다. 피비의 등의 상처를 보고 충격을 받은 월은 그녀를 제자 모임에서 빼내기 위해 결혼을 고백하지만 피비가 다음에 얘기하자는 말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된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게 이어 친한 친구의 지인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고 남자친구의 성폭력까지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이후 피비는 제자 모임이 마련해준 방에서 생활하고 참회하며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을 되새기고 자신이 실패한 시간들을 열거하며 곧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남자친구의 성폭력이 피비가 제자 모임 이외의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제자 모임과 신앙생활에만 함몰되면서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이비 종교집단의 테러의 수단과 철저히 결부되면서 피비는 폭력적인 광신도가 되고 만다. 금식과 채찍, 노동과 신체적 수행은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환희를 주었다. 또한 믿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총을 넘어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는 성스러운 성령의 체험에 대한 갈망을 낳았다. 그러면서 피비는 “주님, 저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곧 내게 내려진 은총이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어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권오경 258-259)라고 고백했다. 앞에서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피비가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 피비는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날 저녁 피츠에게서 메일이 왔다. 피비가 남겼다는 편지 내용이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다.

옥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살육 공장을 부수는 장면을 지켜보았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고, 그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



월,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삶을 사랑하지 않고도 삶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됐어.(권오경 301)

당시 존 릴은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촛불집회의 열기가 사그라들자 존 릴은 제자 모임 6인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그것은 녹스허스트와 뉴욕 등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폭파하는 것이었다. 폭파 장비와 이후 피신을 위한 돈은 제자 모임 일원이 냈는데 피비는 어머니의 저축과 사망 생명보험을 모두 냈다. 그리고 이들은 5군데의 산부인과 병원을 폭파했다. 피비는 CCTV에 얼굴이 찍혀 허드슨 강에 빠져 사망했고 나머지는 가짜 여권으로 캐나다 몬트리올로 피신했다. 그러나 월은 피비가 수영을 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비의 죽음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월은 졸업 후 맨해튼의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비를 보게 된다. 피비가 모습을 감춰 두 사람은 대면하지 못하지만 피비와 존 릴의 성스러운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는 암시와 함께 작품이 끝난다. 이 단계에서 피비는 월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도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테러리스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을 버린 것이지만 피비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 실천하는 종교적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폭탄 테러와 타인의 죽음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독실한 자녀(타인이 보기에는 광신도)로 거듭난 것이다.

정리하면 피비가 교주 존 릴의 제자 모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은 한국계 미국인 1.5세의 사이비 종교 입문을 의미했다. 한국계인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의 어린 시절을 다룬 작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소설에 한국계 미국인 등장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sup>10)</sup> 이에 비추어 작가는 재미

한인 가정을 창안했고 아버지의 폭력과 자녀를 엄하게 양육하는 어머니의 교육열,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를 만든 아버지, 정신병원의 심리상담을 터부시하는 재미 한인사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 목표의 상실을 곧바로 인생의 실패로 간주하고 자학 수준의 방황을 하는 이민 한인 1.5세 피비의 외로움과 죄책감, 절망을 설정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에서는 친구의 지인의 성폭력, 남자친구의 성폭력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피비의 생활 세계는 서서히 왜소해지고 종교 모임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 생활 초기에는 무교의 피비가 영혼의 정화를 지향하는 종교인으로 거듭나는 종교적 순기능이 나타난다. 목표의 상실감과 과오의 죄책감, 고립감과 자기혐오에 휩싸인 피비가 기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종교인을 만나 타락한 삶과 영혼을 정화하고 신성한 삶을 추구하며 성스러운 영혼을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의 세계와는 단절되고 피비는 철저히 제자 모임에 빠진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는 실천을 감행하는 성경 속 믿음의 영웅이 되고자 한다. 종교인을 일부 이해시키고 싶었다는 작가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비가 광신도가 되기 전까지는 종교의 긍정적 기능과 독실한 교인의 긍정적 삶의 지향이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무교였던 피비가 신앙을 통해 잃어버린 삶의 주도권과 지향, 그리고 희망을 되찾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교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을 절대화하여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종교근본주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종교의 교리를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교주의 종교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만다. 폭력적 테러와 살인을 통한 지상천국화를 하나님의 약속의 대리 실천이자

10) "On Religion, Feminism, and writing Korean-American Characters: An Interview with R. O. Kwon", Apogee, 2018.8.13.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은 종교극단주의의 위험성이자 광신도의 자기기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종교적 세뇌와 자기합리화를 넘어 존 릴의 제자 모임에서 피비를 포함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직접 경험하는 성령 체험의 욕망’이 강하다. 하나님의 선택 받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망이 신도를 극단주의적이고 과격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상에서 빠르게 실천하는 명분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센디어리스』는 ‘종교 모임 외 인간관계의 단절’<sup>11)</sup>, ‘성령 체험 추종’, ‘하나님의 약속의 빠른 현실화’가 일반적 종교와 구분되는 광신도와 사이비 종교의 위험한 특이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피비의 폭탄테러범화 과정은 신도의 추종의 메커니즘과 광신도화의 일면을 드러낸다.

### 3. 교주의 지배력과 종교의 폭력성

이 장은 신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주 존 릴의 지배력 확대 과정과 사이비 종교의 폭력성이 갖는 의미를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이는 추종과 광신도를 낳는 종교적 지배의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

11) “인간은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부모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고 이제는 오직 신과의 관계만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겉으로 보면 어느 종교인보다 매우 강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동에 투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떤 상태일까. 프로이트의 시각으로 보면 이진 종교적 신앙이기보다는 자신의 불안을 보상하고 있는 강박적 행동과 다름없다. 순수한 종교적 행동이란 매우 자발적이고 신과의 뜨거운 친밀감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종교적 행동의 배후가 그저 두려움을 없애고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가는 반사행동이라면 이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권수영 58).

의미가 있다. ‘첫 단계’는 존 릴이 신도를 모으기 위한 교주로서의 자기서사의 구축 부분이다. 한국계 미국인 존 릴은 대학 마지막 학기를 반쯤 남겨두고 녹스허스트를 떠나 북한과 가까운 중국 엔지에서 탈북자들을 서울의 보호소로 밀항시키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함께 일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평양 외곽의 수용소에 갇혔다. 그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잔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동료 수감자들이 자신들을 체포한 “미치광이 폭군”(최고지도자)을 향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을 목격하게 된다. 폭군은 이들에게 일종의 신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 폭군을 믿었다. 누군가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든 밖에서든 신앙을 갈구했다. 하물며 그 독재자가 자기 제자들이 믿는 만큼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큰 것을 성취했을까. 만약 그가 그들을 사랑했다면……”(권오경 15) 하고 존 릴은 생각했다. 교주가 되기로 한 존 릴의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이 종교적 리더가 되어 제자를 양성하고 이끌기로 작정한 존 릴은 녹스허스트로 돌아와 지역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을 거점으로 삼고 기독교 소모임을 조직했다.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존 릴은 자신이 주도한 모임의 명칭을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제자(弟子)”라는 한국어로 칭하고 6명 정도의 소수를 신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자 모임에서 북한 “수용소 경험 이후로 그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에 관심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 대신 주께서는 그분의 사도인 자신을 불러서 전보다 긴밀한 방식으로 봉사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권오경 182-183) 그러나 이 작품에서 존 릴이 실제로 북한 체험을 했다고 확실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존 릴의 말을 통해서만 그 사실이 전해질 뿐이다. 그래서 정

식으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한 월은 존 릴의 북한 체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 수용소 구금과 체류 경험, 생존기’는 존 릴이 교주가 되는 명분이자 자격을 입증하는 종교적 계시이자 고난의 서사로서 기능하며 제자들에게 일종의 신화적 기능을 하고 존 릴의 지위를 교주로 격상시킨다. 또한 종교 모임에 명명한 ‘제자 모임’이란 명칭은 교주와 신도의 수직적 관계와 상하 관계를 환기하며 교주에게 신도가 종속 및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신도에게 주입하고 교주의 권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존 릴이 집에서 소규모 종교 모임을 갖는 이유는 그가 신학대학에서 정식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교회의 성직자로 진입할 수 없어서 마련한 방편이며 신도에 대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적인 왕국을 조성한 것인데 존 릴의 ‘북한 경험’이 교회의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소규모 모임을 하게 된 명분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존 릴이 ‘북한 경험’을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로 활용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종교적 지식과 별개로 신도와 자신의 지위를 구별하며 종교적 특권과 권위를 주장하면서 신도에게 지배력을 발휘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교주의 신격화, 신도의 선별 및 제한, 종교 집회의 폐쇄적 운영 등은 사이비 교주의 종교집단이 갖는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존 릴이 직접 소수의 신도를 선별해 포섭하고 충성스런 신도로 훈련시키며 교주로서 거듭나는 과정이다. 신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존 릴의 지배 작업은 첫째, 옷차림으로 나타난다. 존 릴은 길거리를 맨 발로 다녔다. 예수의 형상의 행색은 보이지 않는 신의 가시화라는 점에서 종교적 독실함을 증거하며 타인으로부터 종교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중적 기능을 했다. 신학대학을 다니지 않은 그가 예수의 형상으로 자신을 신격화

하는 방식으로 신심을 드러내며 보통의 기독교인과 차별화 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존 릴이 마련한 모임의 공간이다. 제자 모임은 존 릴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 교회를 이용하지 않은 명분은 북한 수용소 경험 당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존 릴은 신학대를 나와 정식 성직자 수업을 밟은 인물이 아니다. 교회에서 정식 목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낙태 반대 촛불시위 같은 현장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연설을 하고 아멘을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목사로 여겨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소수 모임이기 때문에 개별 신도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친밀도와 충성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종교 집단의 내부 결속이 강화될 수 있었다.

셋째, 포섭대상이 갖는 성격이다. 6명 정도의 소수 모임이라고 했는데 존 릴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권을 누리며 자란 어린 시절, 평생 성취하며 살아온 삶”(권오경 293)이라는 점이 제자 신도의 공통점이었다. 이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나름 부유한 형편이라는 뜻이다. 가령, 존 릴은 피비가 부자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접근했다. 존 릴이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서부의 LA를 거쳐서 동부의 녹스허스트로 왔는데 LA에서 피비의 아버지를 만났다. 피비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재미한인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교회를 짓고 스스로 목사가 된다. 인 목사는 존 릴에게 피비가 어머니 저축과 생명보험금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존 릴은 피비의 정보를 숙지한 후 피비를 찾아가 접선을 시도했고 나중에 피비의 모든 재산을 받아낸다. 이처럼 그는 돈이 상당히 많은 부유한 젊은이들만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 개별 신도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

문에 존 릴의 사기 행각의 진면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또한 피비처럼 타지역에서 와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가 포섭의 대상이었다.

넷째, 제자 모임 신고식에 이르기까지의 직접적 포섭 방법은 식사 초대, 메일, 집단고백, 엄격한 출석, 신고식 순이다. 예를 들어 존 릴은 피비와 월을 식사 초대하는 방식으로 모임에 끌어들었다. 따뜻한 분위기와 음식, 친절한 대화,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독교의 종교적 모임이라는 명분이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렸다. 또한 존 릴은 방문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친 후 초대를 했기 때문에 방문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예를 들어, 존 릴은 피비에게 찬송가의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다. 이는 피비가 피아노를 포기해 상실감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한 의도적인 처방이었다. 신학대를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일반대에 편입한 월이 경계를 풀 정도로 존 릴의 대응과 친화력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존 릴은 초대 이후 재방문이 없을 경우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연락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방문을 할 경우 집단고백에 동참시켰다. 집단고백은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각자가 자기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이나 비판을 받는 식”이다. 이 단계에서는 하고 싶은 사람만 고백을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 피비는 집단고백 시간에 어머니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기고백은 발화자가 그동안 쉽게 하지 못했던 마음의 짐을 덜고 상처를 치유하며 심리적 위로뿐만 아니라 모임 구성원의 심리적 지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포섭 방식이었다. 이 경험 이후 피비도 제자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방문자가 자발적으로 제자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면 존 릴은 엄격한 출석 규칙을 내세운다. 결석하면 다음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칙은 방문자를 충성스런 신도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제자 모임의 규율인 셈이다.

이 과정을 거쳐 제자 모임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신고식이 이루어지고 정식 신도가 된다.

존 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대. 모임 사람들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 연습하고 수련한다면 말이야. 그는 체력 단련의 힘을 믿어. 한번은 사람들에게 뒤편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라고 했대. 다 같이 단단히 다져진 흙을 파느라 몇 시간을 고생했는지. 그런데 기껏 파고 나니 그걸 다시 메우라고 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약간의 고통이 마음을 깨끗이 해준다고 해. 우리를 기다리는 성령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지.(권오경 163-164)

다섯째, 신고식 이후 존 릴의 신도에 대한 통제력 확장과 지배 권력의 확대는 육체적 훈련, 정신적 훈련으로 대별된다. 존 릴과 신도의 관계는 모임의 명칭이 보여주듯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 지위 격차를 고착시키는 명분은 성령 체험의 유무이다. 존 릴은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자들도 열심히 육체적·정신적 수련을 하면 자신처럼 직접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존 릴은 제자들에게 육체적 노동과 운동을 시켰다. 이를테면 피비는 수영을 했고, 존 릴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회원이 된 월은 아침 조깅을 했다. 제자들은 집 뒤편에 구덩이를 파고 메우는 작업을 해야 했다. 육체적 훈련은 번뇌를 없애고 정신을 맑게 하여 하나님에게 보다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존 릴의 지배력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했다. 언뜻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구덩이 파기를 반복하는 것은 존 릴의 명령의 힘과 통제력을 입증시켜준다. 제자들의 복종은 존 릴의 지시에 의문을 품지 않고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존 릴은 이 지배력을 정신적 훈련 방식을 통해서 더욱 확대했다.



예컨대 고소득 직장을 좇고 밀턴에 대해 열다섯 쪽짜리 리포트를 쓰고 그랬다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 자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게 영혼이 있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 우리는 주님께 대해 알려 달라고 빌어야 한다던. 교회에서 믿음을 기독교 신앙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것은 18세기 되어서의 일이었지. 내가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나 또한 신성을 체험하게 될지도 몰라. 끝내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시도는 해본 셈이 될 테고, 너도 그랬던 거 아니야?(권오경 221)

‘세 번째 단계’는 존 릴이 신도를 광신도로 이끌어 제자 모임이 테러 집단, 사이비 종교집단이 되는 최종 단계이다. 첫째, 존 릴은 형벌이 결합된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통해 신도를 자신의 추종자, 광신도로 이끌며 구원의 욕망을 주입시킨다. 신고식 이전에는 자발적 수준의 집단고백을 했지만 이후에는 강제적 집단참회 방식이 진행된다. 집단참회는 “각자 돌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 이야기하고 다짐을 세운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짐에 대한 육체적 기록을 남기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권오경 235) 신도들은 금식을 했고 생쌀을 흠어놓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든 채 쓰러질 때까지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이 집단참회에는 자발적 처벌을 가장한 상호처벌이 결합되어 있어서 피비의 등이 찢기고 피멍이 든 것처럼 몸에 체벌을 가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비는 이 경험을 맑은 정신과 환희를 얻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이 집단참회와 자기처벌은 신도들이 자신들의 종교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못하고 존 릴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단참회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존 릴에 대한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윌이 북한

수용소에 구금되었다는 존 릴의 과거를 의심하자 피비가 남자친구인 월의 생각을 존 릴에게 폭로했고 월은 아직도 존 릴을 의심한다며 교만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자 모임에서 쫓겨났다. 또한 집단 참회는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위한 훈련 단계로서 신도들에게 영혼의 존재를 믿게 했다. 이를 통해 피비를 포함해 제자들은 영혼의 정화와 신성한 영혼의 끝없는 수행을 통한 성령 체험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비처럼 꿈을 상실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관을 하나님을 매개로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존 릴은 이들의 선지자를 자처하며 자신의 지배력 하에 제자들을 완전히 포섭하고 마는 것이다. 의심의 중단은 믿음의 토대처럼 보이지만 생각의 중단이라는 점에서 자아를 죽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수행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통한 영성 추구하고 성령 체험’이 존 릴의 중요한 지배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 신도는 종교 모임 이외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함께 지내면서 존 릴에게만 매달린다. 이때 존 릴은 또 하나의 지배수단으로 종교적 구원을 강조하여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에서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의 특권을 받을 수 있다고 추종자를 미혹한다. 이때 구원의 열망이 신도의 모든 욕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따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찬 피의 강물이 이 나라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쏟아지게 놔둔 것은 우리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미지근하면 입에서 뱉어내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밤늦게 성령을 기다리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겠습니다.

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과격해지지 않는다면, 달리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권오경 207)

존 릴

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일이 간단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싸우기로 맹세했고, 그는 신앙이 선물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신앙은 손 한 번 내밀어서 고스란히 받아 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비록 긴 햇살이 발치에서 아침할지라도, 신앙은 수북이 쌓인 잔해들 사이에서 억지로 끄집어낸 전리품이요, 힘겹게 쟁취한 보상이었다. 다가올 전쟁은 성스러운 치유가 될 것이고, 순수한 이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권오경 256)

둘째, 존 릴이 종교의 교리를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종교극단주의로 이끌며 사이비 교주화하여 최종적으로 신도의 돈을 모두 빼앗고 테러리스트로 이끈다. 이는 종교의 정치적 개입의 문제와도 결부되는데<sup>12)</sup> 교주가 사회적 의제를 활용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신도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 성령 체험과 구원을 갈구하는 신도들은 신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상에서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을 간절히 갈망했다. 존 릴은 제자의 욕망을 이용해 모든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행동을 강요

12) 참고로 “종교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는 근대 사회에서 하나의 스캔들이다.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정통과 이단, 종교와 사이비라는 과거의 편향적 구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종교적(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현실 인식의 정당성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식과 실천에서 양자의 결합을 올바른 것으로 규정하기 마련이다. 종교와 정치는 ‘옳은 것’을 공유하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 그러나 ‘옳은 것’은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이다. 다만, 같은 불의에도 거대 종교 단체의 사건은 ‘일탈’이 되지만 소수의 낯선 종교 단체의 사건은 사이비, 이단 낙인을 받아 사회적으로 거부된다. 그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수의 낯선’ 종교 단체는 정치적 배경을 찾기 마련이다.”(심형준 39-75).

했다. 그 행동이란 하나님의 도구로서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여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이 이 작품에서는 낙태 반대 운동인데 단순히 시민과 함께 하는 촛불집회가 아니라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폭파하는 수준이다. 존 릴이 낙태 반대 운동에 가담한 최초의 이유는 자신이 북한 수용소에 있을 때 교도관이 중국에서 임신해 온 소녀의 배를 건어차 낙태시킨 일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에 귀환해보니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매일 수많은 아이가 낙태되고 있었다. 죄 없는 아이의 죽음은 거대한 악의 시대를 상징했다. 존 릴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책, 홀로 일해 온 역대 선지자들 중 가장 최근에 나타난 자”로 자임하며 “주님의 대리자”(권오경 194)로서 죽어가는 아이에게 혁명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짧은 수명의 인간의 과격한 혁명적 투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상에 빠르게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신앙적 행동이다. 존 릴은 제자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부르며 폭과 계획에 동참하도록 했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 체험을 하며 구원받고 싶었던 피비는 하나님의 뜻은 곧 자신에게 내려진 은총이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신념에 가진 돈을 전부 헌납하고 누구보다 더 앞장서게 된다. 그러면서 피비는 테러로 인해 사망한 의사와 아이, 부모의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이 된다. 존 릴의 테러 집단화는 제자 모임이 종교극단주의의 광신도의 단계로 접어드는 점에서 존 릴의 교주로서의 실험과 역량이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존 릴이 자신을 교주로 정립하는 자기서사와 소수 신도를 직접 포섭하고 충성스런 신도로 훈련시키며 교주로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사이비 종교집단이자 테러 집단의 교주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봤다. 이러한 지배의 메커니즘으로 구현된

사이비 종교집단의 폭력성과 관련해 이 작품은 어떠한 이해와 성찰을 제공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가 테러의 정당성이 되어 테러로 인해 유발되는 모든 죄와 죄책감이 면책되고 있다. 피비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발작을 할 정도였는데 종교에 입문하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용서도 구했다. 그런데 녹스허스트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폭파되면서 그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고 주차장에 있던 고등학생 5명도 죽었다. 그 외 뉴욕 등 4개 병원이 더 폭파되었다. 하지만 이 피해는 매일 산부인과에서 죽는 수천 명의 목숨에 비하면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되었다. 피비가 무교였을 때는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독실한 신자이자 광신도가 되었을 때는 대의를 명분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다. 그런 점에서 광신도화는 인간다움의 상실을 의미했고 사이비 종교화는 도덕성의 상실을 함의한다. “사이비종교는 늘 과도한 나르시시즘을 강조한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믿는 방식이 유일한 최선이라고 한다. 성숙한 종교일수록 인류가 모두 신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사회적 구원을 중시하는데, 사이비종교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권수영 58)

둘째, 광신도는 현실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와 대별되는 타락한 영혼의 타락한 세상으로만 파악한다. 이러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결벽성과 구원의 강압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영혼의 정화를 위한 시급성과 과격성을 강조한다. 이때 광신도의 종교적 행동은 폭력성을 띠게 된다. 존 릴 그룹이 낙태 반대 촛불시위에 만족하지 않고 폭탄 테러 투쟁에 나선 것도 빠르게 믿음을 실천하여 영혼을 정화하고자 하는 신념의 발현이다. 그런데 『인센디어리스』의 작품 말미에 월이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의 사장에게 음담패설을 너무 하니까 여성 직원이 자주 그만둔다고 지적하자 사장이

“귀엽네. 어린애가 자기 소신을 밝힌다 이거지. 하지만 내가 조언 하나 해주지. 네 영혼을 깨끗하게 닦고 싶다면 너 혼자만의 시간에나 해. 내 시간 빼앗지 말고.”(권오경 283)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대화 장면은 월과 사장의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은 각기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쾌락 추구가 있는데 선과 악으로 재단하거나 일방적으로 악으로 규정하여 정화하려는 태도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있다. 다원성의 인간세계에서 광신도 종교집단의 이분법적 태도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한 극단주의 종교의 위험성이 환기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대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광신도적 맹신은 인간 대 인간이 영위하는 세계의 가치를 망각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인식의 편향성과 인간관계 속에 쌓아가는 신뢰와 믿음의 가치가 이와 관련된다. 예컨대, 월은 피비에게 부유한 피비나 도시와 달리 자신의 가난한 고향에서는 중절수술이 너무 비싸서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표백제 등을 이용해 민간요법으로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낙태를 위해 임신한 여자 친구의 배를 기절할 때까지 친 고등학생도 있었다. 그 여자 친구는 침례교도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피비는 웃으면서 이 모든 주장을 검색해서 정리했을 거라고 반문했다. 과거에 피비는 합법적 낙태 수술을 찬성했지만 제자 모임에 깊숙이 가담하면서 낙태 금지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주관 상실과 인식의 편향성을 띠게 된다. 또한 피비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모임 외의 인간적 관계를 단절했다. 처음에는 클럽과 사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을 정리했고 이후 기숙사 친구들을 정리했으며 마지막에는 줄리언을 거쳐 남자 친구였던 월과 헤어지면서 피비의 세계는 오직 제자 모임으로 좁

아지게 된다. 이처럼 세상과 주위 인간관계의 단절은 확연한 고립을 의미했지만 피비는 제자 모임과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오히려 믿음이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피비는 인간의 상호배려와 신뢰, 우정, 일상의 쾌락 추구의 인간적 가치를 망각하고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고려치 않는 테러범이자 광신도가 되고 만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선택받았다는 특권적 믿음과 교주에 대한 맹종'이 인식의 폐쇄성을 낳는 것이다.

넷째, 성령 체험과 구원이 광신도에게 테러의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존 릴은 산부인과 병원 5군데 폭파를 성스러운 전쟁이자 성스러운 치유라고 주장했다. 제자의 폭탄 테러는 성령 체험을 앞당겨 자신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으며 그만큼 믿음이 깊다는 자기 확인을 위한 욕망의 수단이었다. 기독교인의 성령의 내적인 체험과 외적인 물리적 성령 체험은 전혀 별개의 것이지만, 존 릴의 광신도 집단에서 성령 체험은 강력한 믿음을 증거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와 같이 광신도가 성령 체험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때 작품 속 미국인은 극단적 테러에 공포심을 경험했고 테러범을 둘러싼 혐오와 증오가 폭주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9.11 테러 경험이 있는 미국인의 무슬림 혐오가 사회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또한 테러범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는 종교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르침을 절대화하여 자기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종교 근본주의의 사이비 집단적 합리화와 종교의 교리를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종교극단주의의 위험성이 각인되었다. 이와 같이 존 릴과 제자 그룹은 폭탄 테러를 성전이자 성령 체험과 구원의 토대, 종교적 정의로 간주했지만 미국사회와 일반인에게는 광신도의 테러, 종교근본주의와 정치극단주의가 종교극단주의와 결합한 증오 범죄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종교적 행동과 헌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신에 대한 종교적 믿음과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성숙한 종교적 행동을 실천하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사이비 종교 집단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며 교주의 권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 4. 나가며 : 건강한 신앙과 영성의 훈련

한국계 미국작가 권오경의 『인센디어리스』는 3년여의 기간에 걸쳐 피비가 교주 존 릴이 이끄는 기독교 기반 사이비 종교집단 제자(弟子)의 일원이 되어 급기야 산부인과 병원 5군대를 폭탄 테러하는 광신도가 되는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피비가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지는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피비가 여러 사연이 있는 재미 한인 1.5세라는 설정이다. 피비를 매개로 재미 한인 가정의 어두운 면이 일부 가시화되고 있다. 권오경은 이 작품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어린 시절의 서사적 재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어머니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재미 한인의 부부 갈등과 폭력적 아버지, 가족 해체와 아버지 부재, 한국인 어머니의 엄한 진로교육 방식, 꿈의 상실, 죄책감, 한인교회의 보수성 등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결핍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환기하고 있다. 이민자의 지난한 삶이 상기되는 것이다. 두 번째, 피비가 학업에 소홀히 하고 제자 모임에 빠지게 되는데 노동 인식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 피비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신앙인의 삶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베버로 대변되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개념은 세속적 직업 생활이 주어진 소명으로서 신앙을 증명하는 의미가 있는데, 피비의 생각은 기본적인 생활만 영위된다면 이외의 세속적 노동은 불필요하다는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변되는 토마스주의적 직업 개념



에 가까웠다(김춘수 167-168 참조).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자리하게 된 이러한 직업 인식이 기존 피아니스트의 포기의 상실감과 결부되면서 현실 도피적이고 폐쇄적이며 종교몰입적인 경향을 강화한 것이다. 세 번째, 성령 체험, 구원의 열망이 광신도화를 재촉했다. 정신적·육체적 수행을 통해 노력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존 릴의 지도로 인해 성령 체험의 열망이 강화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서 정화의 실천을 감행한다는 명분이 구원의 열망과 결부되면서 폭탄 테러의 만행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은 인간의 획일화와 동질화, 도덕성 상실을 초래하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독자가 성찰하게 하는 문학적 가치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연결의 방식에 대한 사회의 반성적 성찰의 필요성과 사이비 신도를 낳는 개인적·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사이비 종교의 극단주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가치가 있다. 제자 모임의 사이비 종교집단화는 상호체벌과 재산 헌납의 단계를 거쳐 낙태 반대 폭탄테러를 통해 확연히 정립되었다. 낙태 반대 투쟁이라는 설정이 진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현재진행형인 사회의제이다. 예를 들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2022년 6월 24일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내려졌다. 낙태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성이 부정된 것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슬픈 날이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각 주에서는 이 판결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시위와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은 2018년 미시시피주가 의료적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태아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에 행해지는 낙태를 금지하는 임신기간법(Gestational Age Act)을 통과시키자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시설인 잭슨여성보건기구가 주 보건부 장관 격인 토머스

돕스(Thomas Dobbs)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동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sup>13)</sup>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내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여성의 출산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이비 종교의 정치화 문제와 관련된다. 작가 권오경이 작품을 집필할 때 여성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시야에 담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인센디어리스』에는 낙태 반대 시위와 존 릴의 낙태 반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합법적인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윌의 발언을 통해 낙태 불법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자 모임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환기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서 낙태 반대 폭탄테러가 기독교에 근거한 신도의 신앙적 실천으로 정당화되는 점이다. 신도의 행동이 더욱 불법적이고 폭력적이며 극단주의화 되는 현상은 교주의 지배력 강화와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신도의 광신도화를 의미한다. 교주의 신도 착취를 위해서는 동원과 확인이 반복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집단의 극단주의 현상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작품에서도 폭탄테러 이후 교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주가 동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사회적 의제는 착취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뿐이라는 점이 비극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은 사이비 교주가 생명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를 활용해 신도를 동원하고 정신적·금전적으로 착취하는 행위가 교주에 대한 신도의 추종과 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환기하는 문학적 가치가 있다. 사이비 종교집단의 극단주의 사건은 단순히 광신도의 발현만이 아니라 사이비

13) 「미 연방대법원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률신문 뉴스』, 2022.7.11.

교주의 신도 착취의 한 증상인 것이다.

또한 『인센디어리스』는 이처럼 착취당하는 개인의 자아정체성 정립과 모색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문학적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은 ‘인간관계, 연애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유대감’과 ‘종교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유대감’의 대비 속에 피비가 후자에 전적으로 매몰되는 서사이다. 아버지의 폭행과 부재, 꿈이라는 삶의 목표의 상실감, 어머니 사망의 죄책감이 대학시절의 문란하고 절제되지 않은 삶과 결부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피비의 자기 폄하와 외로움이 극에 달했다. 삶과 인간관계의 허무함과 소모적이고 피폐한 일상이 영혼의 정화라는 종교적 가치 앞에 부정되면서 피비는 인간관계의 회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만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직업과 일상, 인연이 갖는 무/의미와 고독을 회피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안정, 삶의 환희를 되찾은 피비는 존 릴과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미를 발견했다. 종교에서 믿음과 행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쓸모 있는 인간, 하나님의 손이 되겠다는 정체성의 정립과 구원의 열망은 존 릴과 같은 사이비 선지자에 의해 사이비 교주와 광신도라는 새로운 착취관계로 변질되고 만다. 이 착취관계 하에서 피비는 자신에게 체벌을 가하고 재산을 모두 헌납하며 다른 사람을 살상하는 폭탄 테러의 도구로 이용되며 광신도화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피비의 변화 궤적은 독자에게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난한 삶을 마주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작품 속 신도들은 모두 피비처럼 20대 초반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성인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삶의 주체적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처한 개인이 사이비 종교에 의존하는 현상은 그만큼 자아정체성 확립의 중요성과 종교적 믿음 및 실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정리하면, 『인센디어리스』에서 종교가 주는 사랑과 유대감은 분명히 긍정적이며 신앙을 포기한 월도 과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기쁨을 인정하고 그리워했다. 이러한 설정은 작가가 종교(인)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면이 있다. 다만 이 소설은 재미 한인 1세와 2세 사이에 낀 한인 1.5세 피비처럼,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자기 주관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회피하며 영적 수련과 영적 실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부재할 경우 신앙생활의 본래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체적 삶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케 하는 문학적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재미 한인의 1.5세 교육과 불안정한 가정, 정신과 상담을 터부시하는 재미 한인 사회의 폐쇄적 분위기가 주인공의 정신에 미친 영향과 주인공의 광신도화, 종교근본주의, 종교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사이비 종교와 결부지어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신과 인간의 연결의 방식이 갖는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가치가 있다. 기독교의 신은 유일신이고 개신교는 교리상 신과 인간 개인의 일대일 대면과 구원이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신의 대리자(목사, 교주 등)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해석하기 어려운 신의 뜻이 신의 대리자인 사이비 교주에 의해 ‘모든 것은 신의 계획’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되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때 부조리와 착취, 극단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신도의 추종의 메커니즘과 사이비 교주의 지배의 메커니즘을 드러내어 독자에게 각각의 이해를 도우며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가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끓어죽어야 예수 만나” …케냐 ‘사이비 종교’ 실종자만 609명」, 『서울신문』, 2023.5.13.
- 권오경(R. O. Kwon), 김지현 역, 『인센디어리스(The Incendiaries)』(2018), 문학과지성사, 2023.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900명 집단 자살 부른 사이비 교주 된다」, 『TV리포트』, 2023.1.29.
- 「미 연방대법원 “한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법률신문 뉴스』, 2022.7.11.
- 「사이비종교 ‘인민사원’ 신도 900여명 집단자살을 이끌다」, 『한겨레』, 2022.11.17.
- 「아기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데일리안』, 2023.3.13.
- 「1000명이 청산가리 주스 마셨다… ‘집단자살’ 조종한 그들 실체」, 『중앙일보』, 2023.4.29.
- “On Religion, Feminism, and writing Korean-American Characters: An Interview with R. O. Kwon”, Apogee, 2018.8.13.
- “When First Love Is as Lethal as Religious Extremism”, The New York Times, 2018.7.24.

### 2. 논문

- 권수영, 「인간은 왜 그토록 무언가를 믿으려 할까? : 종교와 인간 심리」,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 Vol.99, 2023.5, pp. 56-61.
- 김춘수, 「재미 한인의 종교성 분석 - 가톨릭과 개신교 비교」,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59호, 2022.11, pp. 167-168.
- 노연상, 「사이비 종교범죄의 현황과 대책」,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2021.8, pp. 36-59.
- 심형준, 「정치적 종교와 종교적 정치 : 공유된 현실과 존재 정당화의 종교-정치적 성격」, 한국평화종교학회, 『평화와 종교』 Vol. 13, 2022.6, pp. 39-75.
- 이상엽, 「니체, 허무주의와 운명애」,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98권, 2020.12, pp. 331-356.

이행선,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 사이비 종교와 종말에 맞서는 분노의 감정  
윤리 - 토스카 리, 『라인 비트윈』(2019)을 중심으로」, 세명대학  
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3호,  
2022.8, pp. 410-439.

3. 단행본

이정덕·박계영, 『재미한인1세와 2세의 삶과 인종갈등』, 학고방, 2023.  
토스카 리(Tosca, Lee) 지음, 조영학 옮김, 『라인 비트윈(The Line Between)』  
(2019), 허블, 2022.  
Jeff Guinn, *The Road to Jonestown : Jim Jones and Peoples Temple*,  
Simon & Schuster, 2017.4.

(투고일: 2023. 11. 12 심사완료일: 2023. 12. 16 게재확정일: 2023. 12. 18)

이행선

소속: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영빈관 B동 203호

전자우편: sh8017@kookmin.ac.kr

[Abstract]

**Pseudo-Religious Personification and the Violence of  
Pseudo-Religion : R. O. Kwon's The Incendiaries(2018)**

Lee, Haeng-Seon

In 2018, Korean-American author R. O. Kwon's *The Incendiaries* was published. This work is a novel in which Phoebe, who was a non-religious, became a fanatic while campaigning against abortion after falling into a Christian-based pseudo-religion by John Leal, bombing a maternity hospital and fleeing the auth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owth narrative, the author examined the growth process and meaning of Phoebe and the cult leader as fanatics. At a time when social understanding of pseudo-religion, religious leaders, and believers is requested at home and abroad, this work is limited, but it contributes to its understanding. This work is a narrative in which Phoebe is completely buried in the latter amid the contrast between "love and bond that human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can give" and "love and bond that religion can give."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to become God's useful human and hand and the desire to experience the Holy Spirit are transformed into a new exploitation relationship of pseudo-religion and fanaticism by pseudo-prophets such as John Leal. This trajectory of Phoebe's change awakens the reader's awareness of pseudo-religion and evokes the importance of courage to face a past life.

Key words : Korean Americans, Pseudo-Religion, Spiritual Experience,  
Religious fundamentalism, Terrorism